

주거지역에 따른 청소년 내 하위집단들의 복식문화 연구

남 궁 윤 선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시간강사

A Study on the Culture of Clothing of Subgroups among Adolescents by Residence

Youn Seon Namkoong

Dept. of Fashion Design Sung Kyun Kwan University

(1998. 11. 24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ulture of clothing of subgroups among adolescents by residence.

In this research, informants were selected by selective sampling and ethnographic methods such as field work, depth interviews and open-ended descriptions were employed to interpret their culture of clothing.

The results were followed. First, our adolescents enjoyed the popular song as leisure and these popular culture was their inspiration source of style. Second, adolescents were grouping the Kang-Bouk and the Kang-Nam by fashion style, and they had a difference of approach to popular culture. The Kang-Bouk adolescents group preferred the style of popular singers but the Kang-Nam adolescents group preferred the musical competence of singers and specific type, particularly Hip-Hop style. And in accepting pattern of fashion style, the Kang-Bouk groups accepted the recent fashion style continuously and wanted to be striking, while the Kang-Nam groups accepted the various Hip-Hop styles and sought to comfort and suitability of that style. Third, to consider the connotations of marketing, the Kang-Bouk groups shopped on the street perceived as fashionable among peer groups and sought to the lower price, but the Kang-Nam groups used the shops selling their original Hip-Hop style without regard to the price and sites.

Although there existed a two years'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research(1996-1998), subgroups among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residence have had their own culture of clothing constantly. And, a segmentation tendency by clothing behavior within the same adolescent generation is revealed more visibly.

Key words: ethnography, youth(adolescents) subculture, popular song & singer, Hip-Hop, the culture of clothing; 민속지학, 청소년 하위문화, 대중가요, 힙합, 복식문화

I. 들어가는 글

문화적·사회적으로 약호화되었던, 性·富·年齡 등에 따른 룩(look)이 어느 누구에게나 사유될 수 있게 되자 외적 스타일의 다양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 다양화 속에서도 패션을 통한 집단간 정체성의 표현은 일정하게 존재해왔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와 함께 컬러 TV, 비디오, 워크맨, 음반매체의 대량 보급화와 지구촌화 경향 등의 문화적 변화로 인해 이 시기에 태어난 청소년들에게 '신세대' 적인 독특한 정체성을 갖게 한다¹⁾. 특히 패션을 통해 드러나는 청소년 세대의 독특성은 1983년 실시된 교복 자율화로 인해 청년 패션에서 청소년 패션이 분리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 특유의 패션이 구축되면서 기성세대와의 스타일적인 차이가 세대간의 갈등요인이 되기도 했는데, 1990년대 들어 이러한 스타일적인 차이는 청소년 세대내의 차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물론, 획일적으로 교복을 착용했던 당시에도 교복의 변형 등을 통해 차별화를 피하는 소수의 청소년들이 있긴 했지만, 90년대 이후의 문화적 변화와 청소년들의 증가된 소비능력은 그들 집단 내에서도 가시적인 구별성을 드러내고 있다(구정화, 1997).

이러한 세대내의 스타일적인 차이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류학에서 행해진 우리나라 청소년 패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을 동질적 집단으로 보고 구조화된 설문지법이나 신문·잡지의 내용 분석 등을 통해 그들 패션의 특징을(박정숙, 1991; 엄소희, 1995; 염혜정·조규화, 1992)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청소년 패션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과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주고 있으나, 세대내에서도 집단간에 그 구별성이 인지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복식문화를 그들의 관점에

1) 주은우(1996)는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1987년으로 상정하면서, 이 때가 한국에서 소비문화와 결합된 새로운 단계의 영상문화가 발전하는 조건들이 완비되고 그에 따라 문화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라고 본다.

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행동에 따른 청소년 하위집단의 경험적인 존재가 있음을 가정하고 이에 분석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연구의 집단별 분석의 준거로서 주거지역의 차이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하위집단의 파악 및 문화적 특성에 대한 분석, 주거지역에 따른 청소년 하위집단의 복식문화 차이 분석, 주거지역에 따른 청소년 하위집단의 문화적 특성과 복식문화의 관계 및 차이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적인 의복행동과 소비행동을 파악함으로써 현실적인 유용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별적 표집법을 통해 자료제공자를 추출하고, 연구방법으로써 현장조사와 심층면접, 자기 보고서 형식의 민속지적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이 복식문화의 이론화작업에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설명되지 않는 복식 현상에 대한 해석의 토대를 마련해 주리라 여겨진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문화의 특징과 접근방법

한 문화안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 가치 등의 추상적·관념적 체계는 의복, 건축, 공예품, 영상매체 및 예술품과 같은 물질적 문화상품에 각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화 상품에 의해 관념적 체계가 새롭게 창출되기도 한다. 사회는 상징적 의미와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문화 상품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며, 각 개인은 다양한 문화상품 아이템을 선택하여 자신에게 의미있는 현실세계를 만들어 나간다고 할 수 있다(Kaiser, 1990).

청소년들은 서로의 비슷한 이미지, 즉 스타일을 통해 그들의 표현적인 하위문화를 드러내는데, 여러 연구자들은 이렇듯 청소년 하위문화 내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화적 형태의 하나로서 스타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스타일은 보통 하위문화 집단의 특수한 의상, 행위, 언어로 구성되며, 코헨(Cohen, 1965)은 하위문화 집

단의 중요한 측면은 이러한 스타일의 상징적 사용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표현하는 스타일은 상품문화의 기표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하위문화 집단 특유의 사용과 병치에 의해서 전복되어지고 대안적 문화의 생성에 도움을 주게 된다.

헤디지(Hebdige, 1979)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영국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저항집단으로 등장해서 스타일적인 독특성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갔던 戰後 청소년 하위집단의 하위문화를 연구하였다. 그는 하위문화가 표현적 형태이지만 그것들이 표현하는 것은 파워를 지닌 자와 복종적 지위·하층 생활이 운명지워진 자들 간의 근본적인 긴장으로 보며, 이러한 긴장이 하위문화의 스타일 속에서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 하위문화에서 스타일이 갖는 중요성을 인지한 그는 스타일의 변형이 암묵적으로 합치된 신화에 반박하고 '침묵하는 다수'에 분개하며, '표준화'에 반하는 담화에서의 움직임이자 제스처로 본다. 따라서 그는 스타일이라는 표면적인 약호 속에 각인된 숨겨진 메시지를 알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하위집단은 1980년대 이후 청소년층의 경제적 소비력 증대, 대중문화와 영상매체 수용의 범지구촌화, 제도교육의 정신적·육체적 억압으로부터의 적극적 출구모색, 등을 특징으로 개별성을 갖는 집단으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사회학과 인류학 등의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90년대 이후 행해진 민속지적 접근을 통해 이러한 청소년 하위집단의 하위문화를 밝히고 있다. 집합적 가치와 규범의 표출적 상징구조인 이들의 하위문화는 구성원의 행동양식, 취향이나 여가 활용 방식의 차이를 가져와 세대내의 집단간 구별성이 가지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청소년 세대내에서도 다양한 하위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용숙, 1992; 이용교, 1993; 민무숙, 1993; 박재홍, 1995; 김창남, 1995).

이러한 청소년 하위문화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들 집단을 동질적인 연구대상으로 하면 청소년 문화에 대한 표층적 기술에 그칠 수가 있으므로,

직접적 접촉을 통한 인류학적 방법을 통해 각 개인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접근하면 그들의 언어로써 그들의 관점을 심도있게 기술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우리나라 청소년의 복식문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들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한 청바지, 장발, 미니스커트 등으로 인해 기성세대와의 세대간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러한 패션은 세대적으로 볼 때 청소년 패션이라기보다는 청년 패션에 가까웠다. 1983년 들어 실시된 교복자율화는 청년 패션에서 청소년 패션이 분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부터 패션을 통해 기성세대와는 다른 청소년 하위문화의 표현이 시작되었으나 그 표현의 범주나 정도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들어 대중매체 스타들의 춤과 의상을 통해 10대 청소년들의 유행이 주도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스타일에 자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 의미 안에는 학교라는 제도로부터의 탈출, '표준화'가 주는 안도감에의 거부, 기성세대가 부여한 학생으로서의 규범적 기준에의 반항 등 저항적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나 서구의 청소년 하위문화에 비해 그 움직임이나 표현이 비록 미시적이고도 비조직적으로 존재하고, 자생적인 문화창출 형태라기보다는 상업적으로 '주어진' 문화의 표현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청소년 문화에 있어 대중음악은 가장 중요한 관련연구가 된다(김창남, 1995; 조용수, 1996). 1992년 '난 알아요'로 가요계에 데뷔한 '서태지와 아이들'은 랩이라는 음악 장르의 도입을 통해 가요계의 판도변화를 일으키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특히 세대간에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다. 앞선 세대와는 달리 이들의 춤과 의상은 연령층이 훨씬 낮은 10대 청소년들의 유행을 주도하였다. 무대에 서는 이들의 차림새는 한마디로 자유스러움 그 자체였고 그들의 음악과 패션에서의 힙합 스타일의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홍종윤, 1994; 이동연, 1997). 힙합패션의 등장은 1980년대 초반 미국 디트로이트와 시카고 지역의 몇몇 흑인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나이트클럽에

헐렁한 옷을 입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라고 전해지며, 1990년 "Threads 4 Life"라는 의류회사가 젊은 흑인들을 상대로 전파시킨 것이 지금은 신세대 백인 청소년은 물론 세계 모든 신세대의 강력한 상징물로 발전한 것이다. 이 스타일은 편하고 땀을 잘 흡수하는 면, 마 등의 천연 소재로서 몸에 비해 훨씬 크고 헐렁한 티셔츠에, 허벅지 부분이 넓은 자루모양이면서 길게 끌리는 배기 진, 하이킹 부츠, 야구모자 등으로 이루어진다(홍종윤, 1994). 이후 다양한 대중음악 장르와 스타일이 등장하여 청소년들의 패션을 주도하였다. 이렇듯 90년대 들어 연령층이 더욱 낮아진 대중가요 시장의 주 소비층의 스타일 모방대상은 한국가요시장의 대중가수들로 향하며, 이러한 대중음악은 우리나라 청소년 하위집단이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III.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외적 스타일로 표출되는 의복 행동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으로서 민족지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민족지학(Ethnography)은 현장 속으로 들어가 직접적인 관찰과 접촉을 통해 특정한 문화에서의 구체적인 생활 경험,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사회적 규범과 패턴에 대해 세밀히 묘사하거나 인터뷰, 집단토론, 자기 보고서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가 직접 자연스럽게 기술한 자기

이야기를 읽어내는 연구방법이다. 즉, 현지인의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다양한 측면의 연관관계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 문화를 기술해 나가는 작업이다. 그러나 자료 수집시에 표집대상의 대표성, 조사된 내용의 분석시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 편파성,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으로서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김경동·이은숙, 1992; Spradley J. P., 1979; 이지연, 1995).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들이 현재 위치해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스타일을 통한 자신들의 복식문화를 어떻게 형성하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언어로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민족지학의 연구방법인 현장조사와 심층면접, 자기보고서 방법을 택하였다. 현장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남녀 청소년들이 그들의 대표적 쇼핑거리로 인지하고 있는 곳에서 청소년들의 최신 유행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을 위해 두차례의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시에는 초점 집단 심층 면접법을 실시하였고, 2차 조사시에는 질문지를 통한 자유롭게 쓴 자기보고서 방법을 이용하였다.

2. 자료제공자 선정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2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 조사는 96년 3월에서 5월 기간동안, 2차 조사는 98년 5월 기간동안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거친 연구절차는 <

〈표 1〉 자료제공자 선정 및 연구절차

		강 북	강 남
1차 조사	조사장소	돈암동·노원역 부근	방배동
'96, 3월-5월	자료제공자	최신 유행 스타일 착용한	해당지역 학교 선생님으로부터의
	선정방법	15세 여중생 10명 선별적 표집	소개로 16세의 남·여학생 총 6명 선별적 표집
	조사방법	초점 집단 심층 면접	
2차 조사	조사장소	돈암동·명동	압구정동·강남역 부근
'98, 5월	자료제공자	최신 유행 스타일 착용한	최신 유행 스타일 착용한
	선정방법	16~19세의 남·여학생 총 12명 선별적 표집	17~19세의 남·여학생 총 10명 선별적 표집
	조사방법	자유롭게 쓴 자기보고서	

표 1>에서 정리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별 분석의 준거로서 설정한 주거지역의 차이에 따른 분석을 위해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장소를 선정하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남녀 청소년들이 그들 또래친구들과 많이 모여 다니는 대표적 쇼핑거리로 인지하고 있는 장소로서, 1차 조사시에는 강북의 돈암동·노원역 부근과 강남의 방배동, 2차 조사시에는 강북의 돈암동·명동과 강남의 압구정동·강남역을 선정하였다(섬유저널, 1995).

둘째,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자료제공자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법이나 청소년기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연령범위는 9세에서 24세까지이나, 통념적으로 청소년은 학제상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3세에서 19세 정도의 青年前期에 속하는 연령층을 지칭한다(이용교, 1993; 김창남,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연구자가 자료수집 이전에 미리 구상한 차원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피면접자를 선별적으로 표집하는 '선별적 표집법'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박재홍, 1995). 연구장소로 정한 곳에서 연구자는 각각 2차례 이상의 현장 조사를 하였다. 그 후 1차 조사시 강북지역에서는 당시 10대들 사이에 두드러진 유행을 이루었던 짧은 반팔 티셔츠(겨울), 줄티, 힙합 패션, 스노우 보드 패션, 아디다스 패션 등 가운데에서 그러한 스타일을 착용한 10명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선정하였고, 강남지역 조사시에는 중학교 선생님에게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 후, 학교생활과 친구관계에 잘 어울리면서 유행과 대중음악에도 관심이 있고 연구에 기꺼이 참여해줄만한 학생을 부탁하여 소개받은 6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 선정하였다. 강북 청소년들은 각각 5명씩 2회, 강남 청소년들은 6명과 1회에 걸친 초점 집단 심층 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2차 조사는 6명의 연구보조자와 함께 조사장소로 정한 쇼핑거리에서 10대들 사이에 유행 스타일로서 인지되고 있는 다양한 힙합 스타일과 정장 스타일, 패션 아이템들을 조사하였고, 그러한 스타일을 착용한 남녀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강북의 경우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

학년 사이의 남녀학생 12명, 강남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사이의 남녀학생 10명을 선정하였고, 이들에게는 자유롭게 쓴 자기보고서(open-ended description)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 가운데 조사당시 지역은 강남이더라도 그의 주거지역이 강북일 경우 강북 청소년집단의 분석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1차 조사시 학년간 차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가의변인을 배제하지 못한 점과 연구대상 선정시의 일관성이 없었던 점이 연구자료 해석에 제한점이 되리라고 본다.

셋째, 자료제공자와의 심층면접 및 자기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면접방법으로는 연구조사시 별다른 통제없이 자료제공자가 문화적 취향과 패션에 대해 마음대로 답변할 수 있게 하는 비구조적인 면접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자유롭게 쓴 자기보고서는 대중음악의 취향, 선호하는 패션스타일, 의복행동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매회 면접은 연구장소로 정한 쇼핑거리내에 위치해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들은 정확하게 필사노트에 옮기고자 했고, 면접이 끝난 후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나 미처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재확인하여 필사노트에 남겼다.

조사가 2년의 시차를 두고 행해졌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자료제공자들이 최신 유행이라고 언급한 특정 형태나 아이템은 유행의 본질적 특성인 주기성과 변화성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의복행동 패턴은 동일하다고 간주되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들의 답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스타일이나 아이템을 조사결과 분석시에 그대로 제시하였다. 또한 조사내용 분석시에 면접과 자기보고서의 사례는 구분없이 제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하위집단의 유형

또래친구들의 범주화를 통해 드러난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하위집단의 유형은 크게 '범생집단(키가

작거나 옷에 무관심해서 뒤쳐진다고 여겨지는, 또는 메이커만 입는데도 태가 나지 않아 안타까운 집단)', '옷에도 관심 많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좋아하는 집단(학업수준과는 상관없이 유행도 적절히 따라하고, 적절히 잘 놀고, 연예인 얘기나 옷 얘기를 할 때 잘 통하는 집단)', '날나리 집단(선배 언니들에게 맞기도 하고, 잘 놀고, 공부와는 등지고 있고, 지나치게 튀는 집단)' 등으로 분류되었다. 이들의 분류기준은 또래집단의 가치를 기준으로 또래집단에 융화되는 정도를 가지고 분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범주의 분류는 황선진·남궁윤선·이종남(1998)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의 청소년들은 학업정도, 의복형태, 행동의 일탈정도, 성격과 사회적 고립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또래집단을 분류하고 있는데, 그 집단에는 범생이, 평민, 개성파, 날나리 등이 포함된다. 범생이와 날나리 집단은 구체적인 명칭에서도 일치하고 있으며, 이 외에 평민, 개성파 집단은 '옷에도 관심 많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좋아하는 집단'의 특성과 맞물려서 일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은 모두가 스스로를 '옷에도 관심 많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좋아하는 집단'에 속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범주화 외에 이들 청소년들은 유행 스타일을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집단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1차 조사 당시에는 강남과 강북 청소년들 사이에 힙합 스타일이 가장 보편적으로 유행하고 있었고, 특히 강북에서는 겨울임에도 맨살에 짧은 티를 입는 것과 당시 인기 가수들의 개별적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힙합 스타일임에도 지역간에 그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었고, 세대간에 갈등이 야기되었던 것 외에도 같은 세대내의 지역간 갈등이 보여지고 있었다. 이후, 2차 조사당시에는 매체를 통해 기술되어진 '강북은 복고풍, 강남은 힙합이 유행'이라는 명제가 이들 청소년 내에서도 인지되고 있었는데, 이 때에도 세대내의 차이와 갈등이 드러나고 있었다.

"—— 그런데 가끔 강북 애들이 지나치게 해서 입는데 꼴불견이예요. 골반바지를 너무 내려 입어서 허리에서 벗겨질까봐 거기 안쪽에 핀을 꽂고 그러

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구 섰캤도 재수예요. 또 왜 바지로 길거리를 쓸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강남 여)."

"강북 애들의 복고풍은 몸매에 맞지도 않는 아이들이 입어서 천박해 보이고, 촌스럽고, 별로예요(강남 여)."

이렇듯, 청소년의 세대내 하위집단은 학습이나 일반행동, 의복행동 등의 기준에 따라 범생이, 평민, 개성파, 날나리 집단으로 나뉘는 것 외에도, 지역차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에 따라 강남 청소년 집단과 강북 청소년 집단이 범주화되고 있다. 또한 의복행동에 대한 각 청소년 하위집단들 상호간의 관점을 통해 세대내의 집단간에도 잠재적인 갈등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거지역에 따른 청소년 하위집단의 문화적 특성

한국 청소년들은 교육여건상 학업이외의 여가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이용교, 1993). 본 연구조사에 의하면 그들의 여가시간은 대부분 TV 시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의 시간은 여학생들의 경우 또래친구와의 시간보내기, 즉 전화하기, 노래방 가기, 옷가게 eye shopping 등을 하고, 남학생들의 경우엔 컴퓨터 게임이나 통신, 길거리 농구 등을 즐기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모두 대중가요에 관심이 많았는데 TV에서 방송되는 쇼 프로그램이나 대중가요 순위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었다.

"우리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가수들이 많이 나오는 쇼 프로를 좋아해요. 'TV가요 20'이나 'best 50' '토토줄' 등등. 이런 프로에서는 최신 가요도 나오고 그들이 신나게 춤추는 것도 구경할 수 있고, 특히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왔나 관심있게 보게 되요. 최신 가수나 노래, 옷 등에 대해서 모르면 친구들한테 쪽 당해요(강북 여)."

"생방송에 가면 가까이 볼 수 있긴 하지만 거기에 가면 팬클럽끼리 갈려서 잘 섞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팬클럽에 들려면 가입비도 내야하고 행사때마다 돈도 내야하고 시간도 뺏겨서 싫어요. 그럴 돈 있으면 TV에서 가수들 보고 노래방에 가서 실컷 노래 부르거나 옷 사고 그래요(강북 여)."

“우리가 모였을 때 제일 관심있는 것은 누가 나를 좋아하는가, 누가 나를 바라보는가, 옷 입는 것, 노래방 가는 것, 남자와 가수들 얘기 등등이에요(강북 여).”

이들 청소년들이 수동적으로건 능동적으로건 가장 즐기는 대중문화의 하나인 대중가요를 선호하는데 있어서는 지역간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강북 청소년들은 가수들의 스타일에 더 주목했으며, 강남 청소년들은 음악 장르나 음악성 위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강북 청소년들은 Ref, DJ Doc, 서태지와 아이들, 패닉, 쿨 등과 같이 자신들의 기준에서 볼 때 ‘멋있는, 잘 생긴, 옷을 잘 입는 ---’ 가수들을 좋아했다.

“김정민은 목소리하고 얼굴은 터프해서 멋있는데, 옷 입는게 싫어요. 바지길어도 딱 맞고 허리에 꼭 맞춰 입어서 싫어요(강북 여).”

“--- 여자가수 중에는 엄정화가 썩이예요. 그렇게 예뻐 수가 없어요. 옷도 튀게 입고, 엄정화가 얼굴에 스티커 붙이는 거 유행시켰잖아요(강북 여).”

“우리는 그 가수가 좋으면 가능하다면 그 스타일을 쫓아하고 싶어요(강북 남).”

“친구들이 내가 입은 옷이 어느 가수랑 비슷하다고 하면 기분이 좋은데, 저 지나가는 애랑 비슷하다고 하면 기분이 나빠요(강북 여).”

반면, 강남 청소년들은 다른 관점에서 대중가수와 가요를 선호하고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가장 정통 힙합을 추구한다고 여겨지는 그룹을 선호하고 있었다.

“얼굴 반, 음악성 반 봐요. 듀스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춰서 개네들이 해체하기 전에는 싫어하는 애들이 없었어요. 개네들이 추는 춤은 정말 특이하고 기가 막혔어요(강남 여).”

“우린 힙합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지누선을 가장 좋아해요. 옷도 가장 힙합적으로 입는 것 같아요. DJ.Doc의 ‘이 하늘’도 꽤 음악적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강남 남).”

이들 사이에 가장 인기있는 음악 장르인 랩에 대해 물었을 때, 강북 청소년들보다 강남 청소년들이

그 기원에 대해 대략적이거나 좀더 알고 있었고 수용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강북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는 문화 사대주의 관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반면 나름의 주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조사자) 랩은 미국의 흑인 저속 문화에서 비롯된 것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수들이 이런 것을 따라부르고 유행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노래든 옷이든 저질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건, 공부 팔등하는 사람한테서 비롯된 것이건 그런게 무슨 상관이에요. 오히려 저질문화라고 구분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도 공부 못한다고 해서 내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성있지만 하면 좋다고 봐요(강북 여).”

“랩이 흑인들의 뒷골목에서 시작되었고, 그 내용도 매우 저속하긴 하지만, 그러한 것이 그대로 모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식으로 바뀌니까 그다지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봐요. 그치만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강남 남).”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학업시간외의 여가시간 활용이 다양한 문화의 접촉이나 향유 또는 적극적 문화향출 모색보다는 TV 시청, 또래친구와의 시간보내거나 컴퓨터 오락 등의 소극적이면서 수동적인 여가를 즐기고 있었다. 이들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자 그들 문화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가요는 지역간에 그 즐기는 태도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강북 청소년들은 가수들의 스타일에 더 주목했고 그러한 스타일을 모방함으로써 가수와 동일시를 하였으며, 강남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음악 장르나 음악성 위주, 특히 정통 힙합을 추구하는 그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한 힙합을 수용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강북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의 문화 사대주의 관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반면 강남 청소년들은 주체성을 지닌 모방임을 강조하였다.

3. 지역에 따른 하위집단들의 복식문화

(1) 유행 스타일에 대한 인지 및 유행 추구성향과 대중문화에의 접근방식

① 강북

강북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유행 스타일이 존재하며 그러한 스타일을 입고자 원했고, 부모님이나 학교로부터의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극단적 스타일을 통해 무조건 남들의 시선을 끌고 싶어하며, 특이하게 보이고 또 튀고 싶어한다. 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여러 가지 스타일 가운데 강남에서와 마찬가지로 힙합이 있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상의는 타이트하고 하의는 헐렁한 스타일이어서, 강남의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오리지널 힙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형태였다.

“복고, 꽃무늬 자수 블라우스하고 망사 가디건을 함께 입는 공주 스타일, 치마, 건빵 바지, 칠부바지, 힙합 바지, 정장 스타일, 핀, 루즈 싹스, 마녀 구두, 빨테 안경, 세미 힙합 등이 유행해요.”

“짧은 팔이 출긴 하지만 유행하니까 입어요. 한겨울에도 스커트는 짧은 걸 입으면서 짧은 팔이라고 못 입을 이유 없잖아요.”

“튀니까, 유행이니까, 귀엽고 예쁘니까, 어른같은 분위기니까, 몸매에 맞으니까, 정장의 경우는 깔끔하니까——”

또한 강북 청소년들에게 있어 스타일의 영감원은 주로 연예인, 특히 대중가수의 스타일이었으며, 그들이 대중가수를 선호하는데 있어서도 스타일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인기 가수들의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또는 더욱 과장하여 입고자 하는 성향속에서 대중들의 주목을 끄는 연예인의 동일시를 위한 모방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가수들이 특이하게 입고 나오면 그 다음엔 명동이나 돈암동, 방배동 같은 데서 한 둘 나오다가 그렇게 유행되는 거 같아요.”

“탤런트나 모델들은 20대풍이잖아요. 그래서 정장풍이나 예쁜 옷만 입는데, 가수들은 눈에 튀게 입잖아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가수도 좋아하지만 남자가수들 패션을 더 좋아하게 돼요.”

“그 가수들이 입는 옷을 입으면 내가 웬지 그 가수가 된 듯한 생각이 들어요. 유명해 진 것 같고, 남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

② 강남

강남 청소년들은 ‘힙합’이라는 스타일의 일치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모에 있어 나만의 스타일을 강조하고 있으며, 강북의 복고풍 스타일이 남녀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에 강남에서는 스타일상의 남녀차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유행을 좇으면서도 그 속에서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튀기를 원하는 강북의 청소년들과는 달리 자신에게 어울리면서도 편안한 그리고 자신의 또래 집단에 무난히 동화되는 스타일을 원하고 있다. 스타일의 영감원에 있어서는 대중가수의 스타일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러한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하기 보다는 순화된 형태로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들이 선호하는 대중가요나 가수가 이들의 기준에서 볼 때 오리지널 힙합을 추구하는 가요나 가수인데서 알수 있듯이 그들이 추구하는 스타일 역시 거의 힙합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변형을 받아들이고 있다.

“힙합이 유행인데, 요즘에는 힙합도 세미 힙합, 배기 힙합, 일본풍 힙합등 다양해요.”

“헐렁한 티셔츠에 헐렁한 면바지 또는 힙합바지는 기본이구요, 요즘에는 배기 힙합을 많이 입어요. 이걸 바지가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어서 바닥에 끌리지 않아 편해요.”

“그룹 ‘지누션’처럼 머리를 노랑계 탈색한 일본풍 힙합스타일도 가끔은 해요.”

“우린 옛날부터 힙합을 입었어요.”

“뭔가 특이하지만 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으면서 유행하는 옷을 입기보다는 잘 어울리게 입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요. 대중가수들로부터 유행된 힙합 스타일이나 줄티 등은 모두 다 갖고 있긴 하지만 극단적인 스타일보다는 입기에 적당한 어울리는 스타일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스타일의 착용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고 본인에게 어울리기 때문에 입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하는 것은 싫고, 나만의 스타일을 갖고 싶어요.”

강북과 강남 청소년들의 스타일에 있어서의 동조적인 측면을 볼 때 강남이 강북보다 그 집단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남에서는 힙합이라는 한 스타일을 추구하는데 반해, 강북에서는 소집단별

로, 때에 따라, 정장풍·복고풍·세미 힙합·운동선수풍 등의 스타일을 다양하게 추구한다. [사진 1], [사진 2]에서 나타나는 강북 청소년들의 스타일과 [사진 3], [사진 4]에서 나타나는 강남 청소년들의 스타일은 극명한 대조 속에서 두 지역간의 스타일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1]의 강북청소년들은 확실한 성적 구분 속에서 그들 또래친구들 사이에 유행 스타일로 인지되고 있는 복고적인 정장풍을 입고 있으며, [사진 2]의 강북청소년들은 오리지널이 아닌 'POLO SPORT' 레이어드 티셔츠와 칼라달린 티셔츠를 입고 있다. [사진 3]의 강남청소년들은 성적 구분이 모호한 힙합 스타일의 헐렁한 상·하의를 입고 있고, [사진 4]의 강남청소년들은 'POLO SPORT' 라는 브랜드명이 들어간 오리지널 티셔츠를 흰 티셔츠와 레이어드시켜서 입고 있으며, '지누션'의 염색머리 형태와 권총, 야구모자, 헤드폰, 운동화 등의 착용을 통해 그들이 주장하는 힙합 스타일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2) 마케팅적인 함의

① 강북

강북 청소년들의 유행추구성향은 그들이 추구하는 브랜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부모세대가 인정하는 학생으로서의 기준에 합당한 스타일의 부여에 대해 저항하며, 그들 세대 내에서 인기있는 유행지향적 중저가대 캐주얼웨어를 선호하고 있다. 경제적 여건상 브랜드 의류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쇼핑장소로 이용하는 곳은 브랜드 매장보다는 최신 유행 스타일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보세매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강북 지역내에서도 이들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유행스타일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범주화되는 또래집단내의 소집단별로 쇼핑을 같이 하러 다니며, 부모세대의 동의보다는 또래 친구들의 동의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다.

“옷은 새로운 유행이 나올 때마다 사는 것은 아니지만, 평상시 용돈을 꼬박꼬박 두었다가 그때그때 사요. 부모들은 우리에게 테라코타, 티피코시 등을 가끔 사 주시는대요, 우리는 System, Opt, CC, Benetton, Michiko London, Boy London, Enc 등을 좋아하고 돈만 모이면 이런데 옷을 사입고 싶어요.



[사진 1] 복고적 정장풍을 착용한 강북의 남녀 청소년



[사진 2] 힙합 스타일의 강북 청소년들

그리고 옷 사러 갈때는 꼭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데 친구들이 많이 입으면서도 그것과는 좀 다르고, 본인에게 어울리는 옷으로 사요. 옷을 입어보고, 친구들이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는 것으로 사요.”

“옷을 살땐 보세가게를 제일 많이 이용하구요, 다음은 브랜드 매장이나 백화점을 이용해요.”

㉔ 강남

이들은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을 입되 브랜드 종류나 가격보다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의복스타일에 있어서 부모세대와의 갈등에 대한 표현이 없으며 기성세대와의 의도적 저항이나 순응의 의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강북 지역의 청소년들이 언제라도 새로운 유행 스타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강남 지역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스타일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가지면서 타지역에 대한 드러나지 않는 배타성을 지닌다. 그들의 패션이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변형된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강남이라는 지역 안에서 힙합이라는 하나의 획일화

되어 공유되는 스타일을 보이므로, 스타일을 통한 집단적 정체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들의 힙합 스타일 추구는 시간적으로 몇 년 이상의 지속적인 양상을 보이므로, 이들에게는 최신 패션을 빨리 받아들이고 또 빨리 폐기하는 강북 청소년들의 패드 fad 개념의 유행보다는 오히려 클래식 classic 개념의 유행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강남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나 쇼핑장소 등의 모든 것도 힙합과 연관되어 있으며, 강북 청소년들처럼 이들도 보세가게를 이용하는데 그 이용패턴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라면, 이들은 힙합패션만을 다루는 보세가게를 이용하며, 가격 때문이 아닌 스타일 때문에 그 곳을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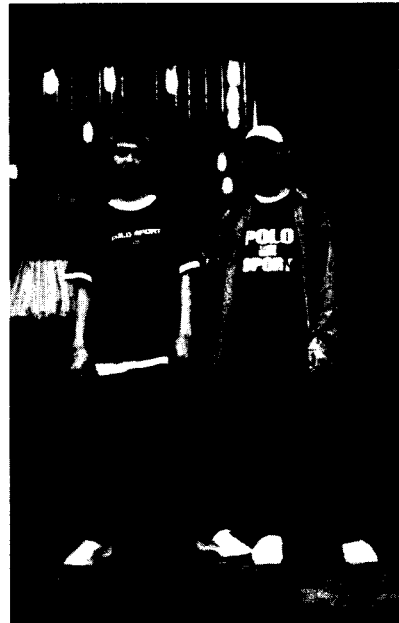
“—— 어울리지도 않으면서 유행하는 옷을 입기보다는 잘 어울리게 입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요.”

“—— 예전에는 메이커만 사려고 했는데 요새는 메이커만 찾는 놈을 오히려 촌놈이라고 해요. 가격에는 상관없이 마음에 들고, 자기한테 어울리고, 남들이 멋있다고 하는 걸로 사요.”

“폴로 스포츠, 노티카, 챔피온, 나이키 외에도 칼



[사진 3] 유니섹스풍의 힙합스타일을 착용한 강남의 남녀 청소년



[사진 4] 힙합 스타일의 강남 청소년들

카니, 팀버랜드, 메이저리그 스포츠 의류를 좋아해요. 챔피온은 오리지널 힙합 패션이에요.”

“이태원에 있는 할인매장을 주로 이용하구요, 보세 가게도 꽤 이용하고 다음은 백화점 정도 ---”

또한, 강북 청소년들의 패션은 사실 안양, 안산, 성남, 수원, 인천, 등의 서울 인근 지역에서부터 심지어 포항에까지 이르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 반해 강남 청소년들은 강남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공유하면서 자신들만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고 비록 자생적이거나 상업 이데올로기에 反 하는 특성을 갖고 있진 않더라도, 지속적인 그리고 고립된 양상을 보이면서 강남 특유의 복식문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 세대의 독특성이 패션을 통해 표현되기 시작한 1990년대의 힙합스타일의 등장 이후 세대간 뿐만 아니라 세대내의 스타일적인 차이가 가시화되고 있는 바를 주거지역에 준거한 하위 집단별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 초점집단 심층면접법과 자유롭게 쓴 자기보고서 형태의 민속지적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연구기간이 2년

동안의 시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에 따른 청소년 하위집단의 복식문화가 일관적인 차이의 양태를 지니면서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청소년 세대 내에서도 의복행동에 따른 세분화 경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나 이성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동성의 또래가 가진 독특성'에 견주어 동조행동을 하는데, 본 연구에서 보여준 바대로 자신과 같은 주거지역에 사는 또래간의 동질성이 드러나며, 이들의 독특성에 영향 미치는 대중음악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또한 비록 패션 추구의 형태에 있어서 지역간에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남과는 다른 나만의 나', 그렇지만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나를 추구하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 청소년 복식문화의 해석을 통해 마케팅적인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강북 청소년들이 최신 유행의 튀는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유행 지향적인 브랜드나 보세품을 선호하는 반면 강남 청소년들은 암묵적으로 자신들만의 스타일이라고 인정하는 의류를 판매하는 브랜드나 보세품을 이용했고, 그것이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스타일 표현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면 그곳이 인기있는 구입장소가 되었다. 따라서 지역간에 마케팅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데, 강북의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한 브랜드나 상점이라면 최신 유행, 튀는 스타일, 인기 연예인의 스타일, 저렴한

<표 2> 주거지역에 따른 청소년 하위집단의 복식문화 비교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복식문화 비교변인 하위집단	강북	강남
청소년 문화의 주요 영향원	대중음악	대중음악
대중음악 선호 패턴	가수의 스타일/다양한 장르	가수의 음악성 내지 음악장르/힙합
유행스타일에 대한 인지	복고풍, 정장풍, 세미 힙합, 운동선수풍	힙합스타일
유행 주기의 형태	소집단별 최신 스타일의 빠른 수용과 폐기, Fad 개념	전반적으로 힙합스타일 내에서의 수용, Classic 개념
스타일 지향점	최신 유행, 튀는 스타일, 인기 연예인 스타일	내 이미지에의 적합성과 편안함, 자신만의 스타일
소비행동 및 쇼핑 장소	경제적 제한에 따른 저렴한 가격 지향/최신 유행 거리	경제적인 구매받음없이 오리지널 브랜드 내지 스타일 지향/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스타일을 판매하는 곳

가격 등을 부각시키는 편이 그들에게 소구될 것이고, 강남의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한 브랜드나 상징이라면 가격에 구애받음이 없이 오리지널, 자신만의 스타일 등을 부각시키는 편이 그들에게 소구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거환경의 어떤 요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 문화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강남의 청소년들이 막연히 갖고 있는 우월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면밀히 조사되지는 못하였다. 차후 연구에서는 그러한 문화적 차이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데 있어서의 여러 맥락들간의 연관, 청소년 주체의 그러한 맥락의 해석과 의미화과정 등을 심도있게 기술해보고자 한다.

또한 아직까지는 청소년 하위집단의 자생적 표현이 아닌, 이미 상업적으로 '주어진' 문화만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저항적 의미(학교라는 제도로부터의 탈출, 기성세대가 부여한 학생으로서의 규범적 기준으로부터의 탈출 등등)를 담아왔었는데, 최근에는 서서히 실천적이며 적극적인 자생적 문화의 창출에 기반한 하위집단이 부상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좀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자료수집과 해석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하위집단의 복식문화를 구체화하고 이론화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주은우(1996). "영상문화시대의 주체." 「경제와 사회」, 봄호 (통권 제29호) : 36-55.
- 구정화(1997). 「청소년 소비문화 연구 - 청소년의 현실적 소비와 그 원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정숙(1991). "한국 청소년의 패션의식에 관한 연구 - 1980년대 학생잡지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엄소희. "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대중음악과 복식에 대한 연구 -197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복식」, 26호 : 101-121.
- 엄혜경·조규화(1992). "한국 신세대의 복식양식 - 1980년대 신문과 잡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6(3) : 233-242.
- Hays, S.(1994). "Structure and Agency and the Sticky problem of Culture." *Sociological Theory*, 12(1): 57-72.
- 양종희(1994). "사회이론에 있어서 문화의 위치: 문화와 사회구조 및 문화와 행위의 관계." 「한국사회학」, 제28집(겨울호): 1-17에서 재인용.
- Kaiser, S.(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Cohen, A. K.(1965). "The sociology of the deviant act: Anomie theory and beyon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 5-13.
- Hebdige, D.(1979). *Subculture-The meaning of style*. London and New York: Methuen.
- 이용숙(1992). "한국 중등학교 문화의 특성." 「한국청소년 연구」, 3(2).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용교(1993). "사회집단과 청소년문화." 「청소년문화론」, 한국청소년개발원編.
- 민무숙(1993). "고교생 또래문화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제13호(여름): 31-47.
- 박재홍(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제29집(가을호): 651-681.
- 김창남(1995).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한울 아카데미.
- 홍종윤(1994). "서태지론."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 현실문화연구編.
- 조용수(1996). 「한국의 신세대 혁명」. LG 경제연구소.
- 이동연(1997). 「문화연구의 새로운 토픽들」. 문화과학사.
- 김경동·이은숙(1992). 「사회조사연구방법」. 박영사.
- Spradley, J. P.(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이지연(1995). "삐삐(무선 호출기) 이용을 통해 본 청소년 하위문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수퍼주니어를 주목하라." 「섬유저널」, 1995, 9: 108-172.
- 황선진·남궁윤선·이종남(1998). "청소년이 지각하는 또래집단의 유형과 의복행동." 「생활과학」, 창간호.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이용교(1993). "청소년의 생활시간." 「청소년 문화론」. 도서출판 서원.